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섬진강 물난리 피해 전액 보상하라”



헌화·분향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들
원이 헌화·분향하고 있다.

7개 시·군 지방의회 공동성명

“용수 확보에 급급 홍수 조절 포기”

국회 수해조사 특위 구성도 촉구

구례·곡성·남원 등 섬진강유역 7개 시·군 지방의회가 18일 공동 성명을 내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 물난리 피해를 전제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섬진강유역 7개 시·군 의회는 섬진강 홍수 원인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규정하면서 국회 차원의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곡성·구례·광양시,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경남 하동군 의회 등 섬진강유역 7개 시·군 의회는 이날 “환경부와 수공은 섬진강 홍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회는 또한 “국회는 즉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집중 호우로 (섬진강 유역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됐다”며 “재산 피해액도 집계 때마다 늘어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공은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초당 196t을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869t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방류량을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은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섬진강

댐은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해 사실상 홍수 조절을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강우량을 맞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홍수기에는 홍수 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상·하류 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들 의회는 환경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회는 “환경부가 댐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 조절 여력을 잃게 됐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이고,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의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물난리 피해액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수해조사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는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물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의회는 “이번 사태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권·정부가 공백한 변명과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과 함께 법적 조치와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섬진강 홍수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물난리는 홍수 통제 콘트롤타워 부재 상태에서 일어났다”며 사실상 물관리 당국의 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국립 현충원에 여야 정치권 총집결

광주 DJ센터·전남 남악서도 열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18일 서울과 광주·전남 등지에서 열렸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립 현충원에 총집결해 고인의 발자취를 기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등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 등도 자리를 지켰다.

박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길고도 질세로 분단의 철조망을 넘어 남북이 오가는 평화의 새길을 열었다”며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고 두벽 두벽, 큰 정치인인 DJ의 험난하지만 빛났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와 싸우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 전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구해본다”고 기렸다.

추도 예식을 진행한 함세웅 신부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이 단상에 선 통합당 김종민 비대위원장은 “현재는 통합과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나치게 힘이 세다고 힘만 행사할 게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

하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김 위원장의 절제와 통합 요청에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 왜 통합에 배치가 되느냐”며 통합당의 사과를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각각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 김대중 대통령 동상 앞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이용섭 시장은 추도사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켜낸 ‘김대중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도식에 이어 ‘그리운 11년, 다시 부르는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서는 남성 사중창단, 소프라노 김선희, 싱어송라이터 정용주, 광주시립합창단 등의 공연이 선보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추도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경제와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고, 갑작스러운 수해가 전남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은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찾았던 ‘김대중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혁의 시대, 원대하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이뤄내겠다”면서 “노벨평화상 수상 등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정신을 영원히 후대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재추진

김종인 위원장 단독회동 염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주목된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최근 통합당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공식 제안이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대일 회동 등 대화의 형식과 의제가 맞다면 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방문 중 문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소재가 정해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

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단독 회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동이 성사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초당적 대처 방안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합당이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과 관련해선 “그간 대표 회담을 해왔던 전례들과 함께 다른 정당의 입장들도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을 포함해 격의 없이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취지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 측에서 21일 일정이 불가하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재론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조율(21일 이후)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연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 ‘대통령이 밥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만나서 할 얘기도 없는데 나중에 시기를 봐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의 새로운 바람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 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질개선, 상·하수도 보급, 지방 상수도 현대화

-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산림 휴양·복지 기반 구축
- 전라도 천연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 숲, 재해방지림 및 소득 숲 조성
- 산림휴양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숲길 정비 및 휴양치유벨트 조성

- 도민 제일주의 소통행정 및 민원 서비스 확대**
-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운영, 주민 맞춤형 강좌, 연장소통 간담회 추진
- 위임 민원 확대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 연장 방문 민원 처리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백강로 38(연항동) / T. 061-286-7821-4